

재외동포청 개청 3주년 기념행사 서울 개최 관련된 일부 보도에 대한 재외동포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.

- 재외동포청은 우리 청 3주년 개청 행사 장소와 관련해 근거 없는 주장과 억측에 기반한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전합니다.
- 재외동포청은 개청 이후 진행한 모든 사업에서 각 사업 및 행사의 규모, 장소 확보 가능성, 참석자 편의 및 소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 뿐만 아니라 서울 및 다양한 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.
 - ※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(전주), 2024년 및 2025년 세계한인회장대회(서울), 2025년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(부산, 전주 등), 2025년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(인천, 부산), 2026년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(서울, 파주), 2026년 세계한상대회, 세계한인회장대회, 세계한인차세대대회 (9월, 인천 예정) 등
- 따라서 서울 이전을 염두에 두고 서울에서 행사를 치르려고 한다는 일부 보도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, 억측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. 서울에서 행사를 개최한다고 해서 재외동포청이 서울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.
- 재외동포청은 6.5.(금) 출범 3주년 기념행사를 △해외 거주 동포와의 온라인 소통간담회, △(중앙 및 지방지) 언론 간담회, △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의 내용으로 개최할 계획이며, 아래 사항을 고려, 행사 장소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.
 - (참석자 배려) 이번 행사는 학계 전문가 및 언론사 기자 등 서울 거주

외부 관계자들이 현장에 다수 참석하는 행사로서 참석자들의 교통 편의성과 다수 현장 참석자 확보를 감안했습니다.

- (영상회의 시스템 기설치) 행사의 핵심 요소는 재외동포들로부터 가감 없이 민원과 건의 사항을 접수하는 소통간담회인데, 외교타운 내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.
- (예산 절감) 행사 장소인 외교타운은 별도 대관료가 없어서 일반적인 대규모 행사에서 상당 비용이 지출되는 대관료가 절감되는 점도 행사 장소 결정에 참고했습니다.
- (재외동포협력센터 사무소) 이번 행사 건물에는 재외동포청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가 2023년 재외동포청 출범과 동시에 입주,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협력센터 통합에 따라 센터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를 배려한 점도 있습니다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	책임자	심의관	곽삼주 (032-585-3154)
		담당자	사무관	성진주 (032-585-3156)

